

## 미국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이자드

미국언론은, 그들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정부 및 주요사회기구의 감시자로서, 개인권리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차 지적되고 있다

미국 국민들 중 윤리강령을 읽어본 사람은 적을런지 몰라도, 훌륭한 언론이란 이런 언론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언론계 종사자와 언론비평가의 관심을 끌어 왔던 문제인 것이다. 언론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민이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와 같은 노력들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칠튼연구소(Chilton Research Services)가 1981년 7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1,412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sup>1)</sup>는 것이다.

위 조사결과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언론이 보도해야만 할 것을 은폐하고 또 언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 언론보도가 정확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위 조사가 있는 후 1981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1,17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상반되는 의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2)</sup> 국민은 여전히 자유언론의 개념을 옹호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싸워왔고, 그후에 근거없는 허위 기사를 게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가열된 언론에 대한 「간헐적인 환멸」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량만이 언론은 책임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반은 언론을 정부가 통제하든지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론이 지금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작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적었다.

1981년에 「뉴스위크」지 역시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76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바 있다.<sup>3)</sup>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언론인이란 직업의 성실성과 윤리적 수준에 대한 물음에 38 퍼센트는 언론인의 수준이 높다고 답했으며 44 퍼센트는 보통으로, 나머지 13 퍼센트는 낮다고 합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그들이 시청하고 구독하는 뉴스의 「대부분」을 믿는다고 답했으며, 52 퍼센트는 「약간만」 믿으며, 9 퍼센트는 「거의」 믿지 않으며, 5 퍼센트는 「거의 모두」 믿는다고 답했다.

1980년 11월에 해리스(Lou Harris)는 연합통신계열사편집인협회(Associated Press Managers Editors)와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토의에서 「신문기자를 신뢰하는 미국의 성인들의 숫자가 83년에 와서야 조금 늘어가고 있다」<sup>4)</sup>고 말했다.

해리스에 의하면, 신뢰도가 1979년 28 퍼센트이던 것이 1980년에는 19 퍼센트로 떨어졌고 다시 1981년에는 16 퍼센트로, 82년에는 12 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1983년에 와서는 다시 19 퍼센트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보잘 것 없지만 해리스는 이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뢰도의 증가는 신문이 노조지도자나 법조인, 주 및 지방 정부지도자 그리고 기업인들보다도 더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리스에 의하면 언론은 아직 종교지도자, 백악관, 대학총장, 의사, 연방대법원, 의회지도자, TV 뉴스 진행자보다는 신뢰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상반되는 결론들은 분명히 언론에 대한 국민의 태도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계속 밝혀보려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맥콤(McCombs)과 워싱턴(Washington)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의 응답은 흥미를 끄는 것이긴 하지만 종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태도에 대한 분석은 물론 조사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은 「국민의 답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sup>5)</sup>고 하겠다.

본 연구도 형태나 내용면에서 다른 조사들과 유사하다. 즉 전국적인 규모의 전화를 통한 조사 방법을 적용해서 언론에 대한 의견조사를 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언론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라고 주장한다. 또한 언론의 상업적인 기능과 사회적 기능 둘 다 어느 정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조사는 1983년 8월에 2주간에 걸쳐 전화를 통해 조사된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전국을 107개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표집에서 뽑았다.

조사대상중인 전화인터뷰에 의한 301명의 사람은 그 중 57.5%가 여성이었고 42.5%는 남성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1.3%였으며,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은 38.7%였다. 한편 자기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한 사람은 28.6%였고, 보수주의자라고 말한 사람은 40.5%였다.

조사대상자들은 46개에 걸쳐 각 주의 인구 분포와 동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 중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도 위 숫자와 비슷하였다. 가장 적은 수의 조사대상자가 속한 주는 뉴 햄프셔, 웨스트 버지니아, 몬타나 등이었다

1. 이번 조사결과, 얻어진 자료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응답자는 공화당을 지지하며, 보수주의자라고 당한 사람들이었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많았으며 주로 남성들이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주로 남부지역 사람들이었고 북동쪽에 위치한 주의 응답자들은 가장 호의적인 응답을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결과는 언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베커, 코비, 소버웨일은 「이념과 지지하는 당이 언론에 대한 비판과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 적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보수적이며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이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6)</sup>

이번 연구에서도 명백히 모순된 듯한 답변을 볼 수 있다. 미국국민은 언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들은 특히 뉴스와 뉴스취재과정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은 통상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언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2. (표-1)은 언론에 대한 비판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기자는 신문을 판매하고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대해 3/4 가량이 그렇게 본다고 대답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재계인사들의 통제를 받는 기자와 편집인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윤추구가 국민에 대한 봉사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자들은 기자 개개인의 이러한 동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한편 대다수 응답자들은 언론은 종종 보도해야 할 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이와 비슷한 질문인, 자세한 취재를 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사를 조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상반된 응답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대다수 응답자는 「언론기관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삽입하며, 충분한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의도적이었던 우연한 것이었던 뉴스대상이 된 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기자들은, 언론의 공정성과, 뉴스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태도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자들은 비판했다. 거의 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공격적이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은 언론인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와 언론에 대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 부정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언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컨대 응답자들의 3/4 은 「언론활동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언론전문인들과 비평가들이, 언론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를 거만함에 있다고 보는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3. 이번 조사에서는 언론기관의 뉴스선정 및 판단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했다. 다시 말하자면, 조사 대상자들에게 짝 지워진 질문을 제시하고 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소재한 신문이나 방송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1〉

(%)

	정말그렇다	약간그렇다	약간그렇지않다	정말그렇지않다
언론은 종종 보도해야만 할 것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	29.0	33.8	23.4	13.8
언론은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36.3	33.2	23.2	7.3
기자들은 충분한 사실보도를 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0.2	27.8	29.2	12.8
기자의 목적은 신문판매와 많은 독자를 만드는 일에 있다.	48.1	29.6	13.4	8.9
기자들은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이거나 어려운 질문을 한다.	49.3	35.8	11.5	3.5
재계인사들의 통제를 받는 기자와 편집인들이 너무 많다.	19.4	34.4	28.2	17.8
기자들은, 자신이 자세한 취재물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사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20.2	29.6	32.9	17.3

※ N=301, 각 칸의 %가 8.5%이상 차이가 날때 p<0.05에서 有意差

- 어느 지방의 숙녀가 전국규모의 미인선발대회에서 1 등하였다.

어느 지방의 숙녀가 하버드대학 장학생이 되었다.

-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독서용 서적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그 책은 외설적인 것이라고 목사님은 비판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독서용 서적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그 책은 주의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교육적으로 건전하다는 찬사를 받았다.

- 빈민가의 어느 실업자가 자살했다.

부유층이 사는 곳의 어느 사람이 자살했다.

- 지방의 가장 큰 은행장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어느 지방의 농부가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표-2)

	크게 주목한다	약간 주목한다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미인대회				
신문	45.5	35.6	16.1	2.8
TV	32.0	40.9	23.4	3.7
장학생				
신문	12.3	29.7	45.7	12.3
TV	9.7	31.3	31.6	27.4
외설서적				
신문	35.7	42.6	19.6	2.1
TV	31.4	42.8	20.7	5.1
교육서적				
신문	16.8	44.3	30.9	8.0
TV	14.2	41.3	30.6	13.9
부자의 자살				
신문	38.9	40.3	17.4	3.4
TV	32.6	45.4	17.2	4.8
가난한 사람의 자살				
신문	15.9	33.1	42.8	8.2
TV	13.1	28.7	32.9	25.3
유주운전(신문의 경우)				
지방의 농부	6.2	12.4	46.4	35.0
은행장	53.3	25.4	15.1	6.2
시장	75.0	14.0	7.5	3.5

\* N=301, 각 칸의 %가 8.5%이상 차이날 때 p<0.05에서 有意味.

<표-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언론은 장학생보다는 미인선발대회 1 등한 사람을, 그리고 교육적인 서적보다는 외설적인 서적을, 그리고 가난한 자의 자살보다는 부유한 자의 자살을 더 강조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신문보도와 TV 보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결과에 나타난 수치상의 차이는 국민이 신문과 TV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신문이 TV보다 활용할 수 있는 지면이 크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나타나는 소재들에 대해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결과로 보면 TV가 신문보다는 훨씬 덜 장학생이나 가난한 사람의 자살에 관한 기사를 취급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응답자들은 TV나 신문들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될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세 사람의 음주운전자를 신문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응답자의 응답은 매우 뚜렷하다. 확실히 공직자(시장)가 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은행가의 경우는 사회적 지위라는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서로 다른 지위의 인물들이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유사한 취급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겠다.

4. 1981년 뉴스위크지의 여론조사에서 갤럽조사연구소가 했던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공공 서비스부문에 해당하는 다른 직업인들과 비교했을 때 언론인의 정직도와 윤리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았다.

〈표-3〉 (%)

	높다/보통이다	낮다
성 직 자	93.5	6.3
언 론 인	93.5	6.5
의 사	88.8	11.2
경 찰	88.1	11.9
재 계 중 역	86.5	13.5
광고회사중역	73.4	26.1
의회 의원	65.6	34.6

\* N=301

7가지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뉴스위크지의 조사에서 나타난 순위와 똑같은 것이었다. 뉴스위크지의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순위는 성직자였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 경찰, 언론인의 순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재계중역, 광고회사중역과 의회 의원을 포함시켜보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흥미있는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업은 언론인이었다. 「높다」와 「보통이다」를 긍정적인 응답으로 보고 「낮다」는 항목을 유일하게 부정적인 응답으로 추정해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보고 「높다」와 「보통이다」는 답변을 합해서 본다면 언론인에 대한 평가순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직자의 경우는 역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지만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인의 경우는 합해서 봤을 때 수치가 성직자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콤과 워싱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각종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는 약간 신뢰하고 있는 직업은? 혹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의 경우 「가장 신뢰하고 있는」과 「약간 신뢰하고 있는」 항목의 응답을 합쳤을 때에는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교육기관종사자에 비해 언론인은 9%정도 낮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서 볼 때,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내린 결론보다는 보다 안정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들은 해리스의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성실도와 윤리적 수준면에서 높다고 본 응답은 38%였고, 보통수준이라고 본 응답은 44%였다.<sup>7)</sup> 신뢰도가 「보통이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는 답변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해도가 조금은 수그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콤과 워싱턴이 지적했듯이 「반언론 감정은,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참을 때의 언론비관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회기관들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상황의 일부분을 반영하는 것」<sup>8)</sup>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언론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바른 직업인과 비교해서 언론인이 거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 언론이 기관이나 언론인을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로 보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언론의 상업적인 목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훨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언론인들이 사회적 이익보다는 독자, 시청자에게 영합하는 기사거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인들은 흔히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며, 기사를 조작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까다로운 질문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미국언론을 보는 긍정적인 태도마저 부정해 버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러한 비판은 건설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론이, 국민이 바라는 것을 실천해 나가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국민들은 훌륭한 언론이란 어떤 언론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 국민들은 언론이 그들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또한 이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언론인들의 대부분이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성실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비판도 소수 언론인들의 잘못 때문에 취해야 하는 댓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인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언론인의 잘잘못은 항상 전체 언론인의 부분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론이 이러한 모든 책임을 떠맡아 주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만약 국민이 그러한 잘못이 단지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언론인들은 그들이 염려하는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커다란 진일보를 하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주)

1) Barry Susman, Washington Post, Aug, 16, 1981, pp. A1 – A2.

2) David Shaw, Los Angeles Times, Oct,11, 1981, pp.1, 13 : Oct. 13, 1981, pp.3,22.

3) Allen J. Hayer, "A Searching of Conscience" Newsweek, May4, 1981, pP.S0-54.

4) Neal Shine, "Editors chastised and cheered at'nass paranoia'session:'APME News, January 1984. pp.3-8.

5) Maxwell E. Mc Combs St Laura Washington, "Opinion Surveys Offer Conflicting clues as to how Public views press" Press time, Feb. 1983, pp.4-9.

6) Lee B. Becker, R. E. Cobbey & I. A. Sobowale "Public Support for the Press" *Journalism Quarterly*, (55) : 421–430 (Autumn 1978) .

7) Mccombs & Washington, *Op. cit.*, p.5.

8) *ibid.*, p.5